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1

강경애 문학의 국제주의의 원천으로서의 만주 체험
-북만 해림 체험을 중심으로-

이 상 경*

요 약

강경애의 문학 수업 기간 중 1920년대 후반의 습작기, 즉 간도 용정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강경애의 만주 체험 여부, 그리고 그 체험의 내용과 성격 여하는 강경애의 독특한 작가의식 형성 과정의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강경애가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연관된 김봉환(金奉煥/金鳳煥, 1897?~1930)이란 인물과 관계가 있었다는 한국사학계 일부의 회고와 그에 바탕한 기록의 오류를 밝히는 데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강경애가 작가로 등단하기 이전의 수업 기간인 1926년 9월~1929년 5월의 행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그 행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920년대 후반의 습작기에 강경애가 만주에 있으면서 1930년 발생한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논란이 있는데 강경애의 소설 수필 등의 작품과 당시의 신문, 잡지의 기사, 후대인의 회고와 최근 발굴한 『여성조선』(1933.1)의 기사 「여성사전」을 함께 분석해 보니 강경애는 1927~1928년 2년간 북만 지역인 중국 길림성 해림시에서 교원 노릇을 하고 1929년에 장연으로 돌아와 1931년 6월까지 장연에 있었다. 또한 강경애가 '『신민보』 사건'을 포함하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한족총련 관련자들, 특히 이강훈의 착종된 기억과 회고가 특정 의도에 의해 윤색된 상태에서 '독립운동사'로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기억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강경애가 교원으로 2년간 머물렀던 시기의 북만 해림은 조선공산당 만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한국문학

주총국이 세력을 넓히면서 신민부 중심의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강경애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인식하고 이후 작품 활동에서 그러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게 되었다.

주제어: 만주 체험, 해림(海林) 체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김좌진(金佐鎭) 암살 사건, 『신민보』, 이강훈(李康勳), 김봉환(金奉煥),

목차

1. 강경애의 만주 체험에 관한 논란
2. 1920년대 후반 강경애의 북만 해림 체험
3. '『신민보』 사건'과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거리
4. 강경애 문학에서 북만 해림 체험의 의미
5. 맺음말

1. 강경애의 만주 체험에 관한 논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간도를 그린 작가 강경애가 문학 수업을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 후반의 행적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었다. 지금까지 정리된 연보 상으로 보면 강경애가 작가로 등단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926년 9월 이후부터 1929년 5월 이전까지 시기의 행적을 공식적인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시기에 강경애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강경애의 삶이나 문학 세계를 구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즉 1931년 6월 남편 장하일과 함께 간도 용정에 가기 이전에 강경애가 이미 한 번 만주를 갔

다 온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강경애의 작가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작가의식 형성기의 체험을 밝히는 문제로서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 바깥에서 강경애가 1927년 3월의 신민부(新民府) 제1차 검거 사건과 1930년 1월의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시기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도 용정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강경애의 만주 체험 여부, 그리고 그 체험의 내용과 성격 여하는 강경애의 독특한 작가의식 형성 과정의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강경애가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연관된 김봉환(金奉煥/金鳳煥, 1897?~1930)이란 인물과 관계가 있었다는 한국사학계 일부의 회고와 그에 바탕한 기록의 오류를 밝히는 데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강경애가 작가로 등단하기 이전의 수업 기간인 1926년 9월~1929년 5월의 행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그 행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선 김좌진과 신민부, 『신민보(新民報)』 관련 역사적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둔다. 신민부는 1925년 3월 10일 북만 영안현 영안성(寧安縣 寧安城)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조직 당시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은 김혁(金赫),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 김좌진, 민사부위원장 최호(崔灝), 교육부위원장 겸 선전부위원장 허성묵(許聖默)이었다. 신민부는 1925년 4월부터 1926년 8월까지 기관지 『신민보』를 총 16호 발행했다. 창간 당시 발행인은 허성묵, 주필은 최호였다. 1927년 3월 초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경찰은 중국 관헌과 함께 석두하자(石頭河子) 홍륭진의 신민부 본부를 습격해 선전부위원장 허성묵 등을 검거했다(신민부 제1차 검거. 『신민보』의 중심이던 허성묵이 체포된 사건이기에 이하 '『신민보』 사건'으로 약칭한다). 1927년 12월 25일 석두하자 회의에서 신민부는 운동의 방향을 두

고 교육과 산업을 우선하자는 '민정파(民政派)'와 무장투쟁을 전개하자는 '군정파(軍政派)'로 분열되었다. 1928년 1월에는 석두하자에서 중앙집행위원장 김혁 등이 검거되면서 신민부는 중심을 잃게 되었다(신민부 제2차 검거).[1] 1928년 11월 신민부 군정파가 농민들을 살해한 '빈주사건(賓洲事件)'이 발생하자 민정파는 군정파의 지도자인 김좌진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이에 민정파와 군정파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완전히 분열했다. 이후 김좌진 중심의 군정파는 아나키스트 단체인 재만무정부주의자연맹과 손을 잡고 1929년 7월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 이하 '한족총련'으로 약칭)를 조직했고, 민정파는 국민부(國民府)에 참여했다. 1930년 1월 24일 김좌진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화요계 청년에게 암살당했다(이하 '암살 사건'으로 약칭함).[2]

애초 필자는 이 시기 언젠가 강경애가 간도를 한 번 갔다 온 바가 있고 결혼 후 다시 가게 되었다고 추정했었다.[3] 그런데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이 달의 문화인물' 지정과 관련하여 강경애가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문화인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4]이 제기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반박으로 강경애가 사건 당시 중

1) 신민부원 검거 사건은 1927년 3월과 1928년 1월, 두 차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민부 관련 서술에서는 이것을 1926년 4월이나 1927년 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로 서술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당시의 신문 기사나 일제측 자료를 참고하여 두 번의 사건으로 정리했다. 「하얼빈 일본영사관 신민부원 다수 검거」, 『동아일보』 1927. 3. 10. ; 「신민부 중앙위원장 김혁 외 8인 검거」, 『동아일보』 1928.1.28.

2) 이상 신민부와 김좌진에 관련된 사항은 박환, 『만주벌의 항일 영웅 김좌진』(도서출판 선인, 2016)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다만 주1)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의 신민부의 검거 사건을 구별하고 제1차 사건에 대해 '『신민보』 사건'이라 이름 붙인 것은 필자의 것임.

3) 이상경 엮음, 『수정 증보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2002, 845~846면. 다만 김헌순의 「강경애론」(조선작가동맹 편, 『현대작가론』 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을 참고한 관계로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지 못했고, 장소도 '간도'라고 부정확하게 썼다.

국에 있지 않았기에 '암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강경애는 2005년 3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바 있다.[5)]

문화인물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이후인 2007년, 최학송은 만주와 간도라는 지명을 구분하고 강경애가 '간도(間島)' 체험과는 구분되는 '북만(北滿)' 체험을 했다고 추론했다.[6)] 최학송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 동북 3성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다시 동만, 남만, 북만으로 나뉘며 북만은 지금의 흑룡강성 지역을 가리키는 반면, 간도는 만주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인접한 지역을 가리키는데, 다시 압록강 쪽은 서간도, 두만강 쪽은 북간도라 불렸고, 간도라고 하면 흔히 북간도를 가리켰다는 것이다. 강경애가 말하는 간도 역시 훈춘, 연길, 왕청, 화룡의 4개현으로 이루어진 북간도 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강경애가 여러 수필에서 1931년 6월 처음 두만강을 건넜고, 처음 간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 것은 북간도 지역에 처음 갔다는 말이지 중국의 다른 지역에 간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강경애가 1931년 초에 『조선일보』에 독자투고로 발표한 첫 소설 <파금>에 '영고탑(寧古塔)'이란 지명이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1926년~1928년 사이에 강경애가 북만 영고탑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의 북만 체험이 이후 강경애 작품에 보이는 사회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이 시기의 강경애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4) 오동룡, 「의혹 추적 = 문화부는 왜 '이 달의 문화인물'에 프로문학가 강경애를 선정했나 = "소설가 강경애는 김좌진 장군 암살 교사범의 동거녀"(전 광복회장 이강훈 옹의 회고)」, 『월간 조선』 2005년 2월호.

5) 이상경, 『3월의 문화 인물 강경애』, 문화관광부, 2005.

6) 이하는 최학송의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인하대하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논문, 2007.02. 9~25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최학송의 이 논문의 내용은 최학송, 『재중조선인 문학연구』(소명출판, 2013)에도 실려 있다.

> 1924년 9월 양주동과 헤어진 강경애는 동덕여학교를 중퇴하고 황해도 장연으로 돌아와 문학공부를 하며 지냈으나 "친지의 꾸중과 이웃의 냉대에 견디지 못하여" 1926년에 북만 닝구타(닝안)로 갔고 그곳에서 '유치원 여교사'를 하였으며 사회주의자 김봉환을 만나 함께 살았다. 『신민보』에 '적색 경향'의 글을 발표하며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1928년에 장연에 돌아와 근우회에 가담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경향이 강한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며 장하일을 만나 결혼하고 1931년 6월 다시 만주로 가게 되는데 이번 행선지는 간도 룽징이었다.[7]

최학송이 소설 〈파금〉에서 출발하여 강경애의 북만 체험을 추론한 것은 강경애 연구에서 큰 성과이다. 그런데 최학송이 강경애의 북만 체재시기로 보아 강경애를 1930년의 '암살 사건'과는 관련지을 수가 없지만 그 이전 '『신민보』 사건'에는 관련되었다고 보고 북만 체재시기를 1926년 초~1928년 겨울 이후로 3년 가깝게 길게 잡은 것은 후대의 회고를 텍스트 비판 없이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무리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1926년 후반~1929년 전반 무렵의 강경애의 행적 문제는 결정적인 자료 없이 추론과 주장만 있는 상태이기에 필자는 이 논란의 한 당사자로서 늘 미진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강경애가 간도 용정에 가기 이전에 북만 해림(海林)에서 2년간 교원으로 재직했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제가 된 시기의 강경애의 행적을 밝히고 '『신민보』 사건'이나 '암살 사건' 연루설도 가능한 자료 내에서 비판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후 강경애의 삶과 문학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부정확한 혹은 왜곡된 기억이 역사적 기록으로 정착된 뒤 다시 그것을 근거로 기억이 생산되는 '이야기 만들기'의 과정을 추적하고 그 문제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7) 위의 논문, 24~25면.

그리고 북만 해림 체험이 강경애 문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경애는 1927~1928년 2년 간 북만 해림에서 교원으로 재직한 후 아무리 늦어도 1929년 5월 무렵에는 황해도 장연에 귀향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글을 발표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931년 6월 동흥중학교에 취직한 남편 장하일을 따라 간도 용정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일제의 '치안숙정공작'의 와중에 건강도 좋지 않아 1년만에 다시 장연으로 돌아왔다. 1년여 장연에 머무르다가 1933년 9월 경 재차 용정으로 가서 1939년 말 신병으로 완전히 귀향할 때까지 살았다.

또한 강경애가 '『신민보』 사건'을 포함하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한족총련 관련자들의 착종된 기억과 회고가 특정 의도에 의해 윤색된 상태에서 '독립운동사'로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기억이 재구성된 '이야기'일 뿐이다.

강경애가 교원으로 2년간 머물렀던 시기의 북만 해림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세력을 넓히면서 신민부 중심의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강경애는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인식하고 이후 작품 활동에서 그러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게 되었다.

2. 1920년대 후반 강경애의 북만 해림 체험

황해도 장연에서 자랐고 주로 간도 용정에서 작가 활동을 했던 강경애의 행적에 대한 정보는 강경애 자신이 작품이나 수필에서 언급한 것과 동시대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나 기사, 그리고 강경애 사

후의 연구나 회고 등을 통해 얻은 것이다.

<나의 유년 시절>, <고향의 창공>, <자서소전> 등 강경애 자신의 수필에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의붓아버지 집에서 구박받았던 사연, 돈 때문에 평양 숭의여학교를 어렵게 다녔고 또 동맹휴학에 관련되어 퇴학 당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글들은 이후 강경애의 생애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밖에 <간도 풍경>,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 <간도의 봄>, <간도> 등 간도 관련 수필은 1931년 6월 장하일과 결혼해서 함께 간도 용정으로 이주한 이후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의 시기를 전후한 강경애의 행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18세) 10월 경 숭의여학교 3학년으로서 동맹휴학과 관련 퇴학을 당한 후 서울 동덕여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년간 공부했다.

1924년(19세) 5월 양주동이 주재하던 『금성』지에 강가마라는 필명으로 <책 한 권>이라는 짤막한 시를 발표했다. 9월 초 장연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문학공부를 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홍풍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25년(20세) 11월 『조선문단』에 시 <가을>을 발표했다.

1926년(21세) 8월 18일 『조선일보』에 시 <다림불>을 발표했다.

1929년(24세) 6월 10일 현재 근우회 장연 지회의 서무부장이었다. 10월 3~7일 『조선일보』에 독자투고로 <염상섭씨의 논설 「명일의 길」을 읽고>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발표 당시 필자 이름을 '장연 근우회 지회 내 강경애'로 서명하고 있다.

1930년(25세) 11월 <조선여성의 밟을 길>이란 시론을 『조선일보』(11.28~29) 부인문예란에 투고로 발표했다.

1931년(26세) 1월 『조선일보』(1.27~2.3) 부인문예란에 <파금>이란 단편소설을 투고로 발표했다. 2월 11일 역시

『조선일보』에 '장연 강악설'이라고 서명한 <양주동군의 신춘평론 - 반박을 위한 반박>이라는 양주동 비판문을 썼다. 6월 경 장하일과 결혼하고 간도 용정으로 이주했다.

1932년(27세) 6월 그 사이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 일제의 '토벌' 등의 사건을 피해 병도 치료할 겸 장연으로 귀향했다.

1933년(28세) 9월 경 다시 간도 용정으로 가서 1939년 말까지 살았다.

1920년대 후반 습작기에 대해서는 1932년 5월경 용정에서 강경애를 만난 김경재의 다음과 같은 전언이 가장 자세하다.

> 내가 평양 숭의여고에서 기숙사 사감을 내여 쫓으려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퇴학당하고 그 후는 서울의 동덕여학교에 다니다가 중도에 퇴학하고 고향인 장연으로 갔지요. 우리 집의 후면은 수림이 무성한 산인데 거기에서 들리어 오는 매미 소리가 어찌도 구슬프던지요. 나는 나무 밑에 앉아서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초목과 금수가 제각기 독특한 빛[色]을 발하고 음성을 내이는데 나도 나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여 나의 존재를 빛내어야겠다 하고 거듭거듭 결심했지요. 그래서 나는 소설로... 이렇게 생각했지요.[8]

하지만 김경재는 결혼 전 강경애가 혼자 북만 해림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가 하면 1920년대에 강경애와 가까이 지냈던 양주동도 북만 해림에 갔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9]

---

8) 김경재, 「최근의 북만 정세, 동란의 간도에서(속)」, 『삼천리』, 1932.7.1. 이하 자료 인용은 원전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행 맞춤법에 맞게 적절히 한글 표기로 바꾸었다.

9) 이규희, 「강경애 연구 - 빛과 어둠의 절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1974. 이

강경애 사후, 강경애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간도 용정에서의 결혼 생활과는 좀 다른 특별한 만주 체험을 언급한 최초의 글은 해방 후 1949년 3월 평양에서 ≪인간문제≫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뒤 9월에 발표된 임순득(任淳得)의 서평이다. ≪인간문제≫ 단행본[10]에 붙어 있는 기석복의 <서문>에도 강경애의 생애가 약술되어 있지만 유년기와 여학교 시기까지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순득은 ≪인간문제≫ 단행본이 출간된 뒤에 서평을 쓰고[11] 장연의 강경애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등, 해방 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강경애 기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강경애의 행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쓴 듯하다.

> 씨는 일찍이 생활에 쫓겨 간 먼 이역 간도에서 빨치산의 진면목을 포착하고서 유격대에 들어가려고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씨는 천부의 예술적 재질을 들여 작가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씨의 창작세계는 곧 씨의 향수의 노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씨에게 있어서는 국내에서 땅을 빼앗기고 유랑민으로 간도에 이르러 또 중국인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는 동족의 참상에 견딜 수 없었고 그 쫓긴 유랑민이 비참하게 패배의 잔명(殘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광복의 투사로서 삭북(朔北)의 바위 밑을 뚫고 수림 속을 헤쳐 혁명적 역량을 장성시키는 그 영용한 모습을 누구보다 재빨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것이다.[12]

논문에서 이규희는 양주동과 최문려를 인터뷰하여 강경애가 1924년 9월 양주동과 헤어진 뒤 고향 장연에 돌아와서 언니가 경영하는 서선여관에도 있었고 최문려 씨의 집 사랑방에도 유숙하면서 문학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회고에는 강경애가 결혼 이전에 한 번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없다.

10) 강경애, ≪인간문제≫, 평양: 로동신문사, 1949.

11) 임순득, 「≪인간문제≫를 읽고 - 간단한 약력 소개를 겸하여」, 『문학예술』 1949.8.

12) 위의 글.

그런데 임순득은 “생활에 쫓겨 간 먼 이역 간도에서 빨치산의 진면목을 포착하고서 유격대에 들어가려고 한 일”을 언급했지만 1931년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용정으로 이주한 사실은 따로 기록하지 않아서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이 두 사건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북한의 연구자 김헌순이 쓴 「강경애론」이다. 김헌순의 연구는 이후 강경애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이기에 장황하지만 조금 길게 인용한다.

> 강경애가 여학교 시절을 보낸 1924~26년[13] 당시의 우리나라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 하에서 노동 계급과 농민, 학생, 인텔리들의 대중적인 반일 투쟁이 날로 격화되어 가던 시기로, 평양에서도 바로 이러저러한 형태의 사회적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혁명적 현실은 자신의 운명과 불행을 계급과 민족의 운명에 결부시켜 사색할 줄 모르던 강경애의 의식을 새롭게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 그리하여 그는 3학년 때 학교에서 일어난 동맹 휴학의 선두에 나설 수 있었다. 이 동맹 휴학은 기숙사 사감이었던 나모라는 자가 한 여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데서 발단되었으나 점차 종교 교육을 반대하는 큰 투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
> 동맹 휴학은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끝까지 관철되지 못하였고 선두에 섰던 몇몇 학생들과 함께 강경애도 출학 당하고 말았다. 비록 배움의 길은 잃었으나 이 체험은 강경애의 사상 발전과 인간적 장성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었다. (…) 그러다가 강경애는 생각한 바 있어 우선 배움에 굶주린 무산 아동들을 위한 홍풍야학교를 개설하고[15] 직접 교편을 잡는 한편 습작의

13) 김헌순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짐작으로 쓴 것 같다. 강경애가 평양숭의여학교에 다닌 기간은 1921년 4월~1923년 10월 정도로 추정된다. 강경애가 3학년 때 벌인 동맹휴학이란 1923년 10월의 일이다. (「숭의교생의 맹휴와 잔인한 나씨의 행위」,『동아일보』1923.10.17.)

14) 중략 표시 기호 ‘(…)’는 인용자의 것. 이하 같음.

15)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장연에는 1925년 10월에 ‘홍풍여자야학’이 설립되었고

붓을 들었다. 그가 문학 창작에 어렴풋이나마 뜻을 두게 된 것은 여학교 학창 시절이었다. 강경애는 권태스럽게 지내던 3년간을 거의나 작품 탐독으로 보냈다. (…) 1929년 겨울에 강경애는 고향에서의 질식스러운 환경을 박차고 중국 간도로 건너갔다. 국내에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계속 앙양되어 가던 이 시기에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혁명 정세가 나날이 성숙되어 갔으며 특히 동만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반일 기세가 더욱 강하였다.

강경애는 용정 일대에서 근 2년 가까운 동안 때로는 교육기관의 임시 고원으로 일해 보기로 하고 때로는 끼니를 넘기는 가난의 고초를 겪어 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 그가 목격한 현실은 1931년 그가 간도를 떠나면서 쓴 수필 <간도야 잘 있거라!>에서 눈물겨웁게 회상되었다. (…) 참을 수 없이 비극적인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강경애는 분연히 창작의 붓을 들어 자신의 고통스럽던 지난날과 고난에 떠는 간도 인민들의 생활을 모델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자서전적인 처녀 장편 ≪어머니와 딸≫(1931년 8월), 단편들인 <부자>, <그 여자>(1931~32년) 등은 이렇게 창작되었다.

그는 1931년 말에 고향에 돌아 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간도 용정으로 건너가 193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사를 돌보는 한편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였다.[16]

1961년이면 아직 강경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김헌순은 그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경애론」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붓아버지가 '최 도감'이라든지, '홍풍야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김헌순이 처음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강경애가 남긴 각종 작품이나 관련 기사 자료 등을 충분히 보지 못한 상황에서[17] 세부적으로 연도 같은 것이 부정확하

학생 수는 100명가량이었다고 한다.「홍풍회 경영 남녀야학 성황 그 중에도 여자부」,『동아일보』1925.10.30.

16) 김헌순, 「강경애론」, 조선작가동맹 편, 『현대작가론』 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295~298면.

고 강경애가 결혼 전 북만 해림에 갔다가 귀향한 것과 결혼 이후 간도 용정에 갔다가 일시 귀향한 일을 혼동하고 있다.

장하일과 결혼하기 이전에 강경애가 중국 어딘가에 다녀왔음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강경애 친구의 동생인 고일신(高日新, 1915~2016)[18]이었다. 고일신은 중국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강경애가 중국에 갔다 온 후에 장하일을 만났고 두 사람이 결혼한 후 다시 간도 용정으로 갔다고 두 사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회고했다.

강경애 자신은 해림 체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1933년 1월에 발행된 『여성조선』이라는 잡지에서 「여인사전」이라고 하여 여성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항목에서 문제가 된 강경애의 만주 체험을 '북만 해림' 2년과 '북간도 용정' 1년으로 분간하여 써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17) 김헌순은 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경애는 이때까지 작가론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가 국내 문학 운동과는 멀어져 동북 용정에서 창작 활동을 전개한 사정으로 그의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를 더듬을 수 있는 자료는 거의나 찾아보기 힘들다. 나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도로 자료를 수집해 보려 하였으나 그의 처녀 장편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과 용정에서의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강경애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의 완성은 여전히 앞으로의 과제로 남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는 다만 그의 작가적 성장 과정과 작품 세계의 개괄적인 소묘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책, 292~293면.

18) 고일신은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강경애의 친구의 동생이었다. 소설가 이무영과 결혼했다. 필자는 1999년 1월 29일 서울의 고일신 선생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강경애: 황해도 장연 산. 방년 28세. 일찍이 평양숭의여학교 재학 중에 사감을 내어쫓으려고 동맹휴학을 일으켜 퇴학 당하고 동덕여학교에 재학하다가 중도 퇴학. 그 후 북만 해림에 가서 교원으로 2년 재직. 근우회 장연 지회 간부. 북간도 용정에서 1년 거주. 현재 장연읍에서 부군과 동거. 소설가.[19]	 姜敬愛 黃海道長淵産、 年二十八歲、 일찍이 平壤崇義女學校在學中에 舍監을 내어쫓으려고 同盟休學을 이르키어 退學當하고 同德女學校에 在學타가 中途退學、그후 北滿海林에가서 敎員으로二年在職、槿友會長淵支會幹部、北間島龍井에서 一年居住、現在長淵邑에서 夫君과同居、小說家。 —(9)—

1933년 1월의 시점에서 이 「여인사전」의 기록은 짧지만 매우 정확하게 당시까지의 강경애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다. 평양숭의여학교에서 사감을 내쫓으려고 동맹휴학을 일으켰다든지, 동덕여학교를 중도 퇴학했다든지, 근우회 장연 지회 간부라든지, 1년간 용정에서 거주했다가 돌아와서 장연에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자료들과 상호 대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기에 '북만 해림에 가서 교원으로 2년 재직'이란 기록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잡지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강경애는 『여성조선』 제30호(1933년 2월호)에 「시악시」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20] 강경애가 장연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기사이고, 그 다음호에 강경애가 작품을 실은 것으로 보아서도 이 기사는 신뢰할 만하다. 이 점에서 강경애가 북만 해림에서 2년간 지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2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강경애가 흥풍야학을 개설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21] 흥풍야

19) 「여인사전」, 『여성조선』 제29호, 1933. 1. 『여성조선』이란 잡지는 아단문고에서 제27호와 제29호만 확인할 수 있다. 제29호에는 여운형, 김경재, 원세훈, 허정숙, 김기림, 주요한, 김동환, 김조규, 민병휘, 서광제, 홍구, 이종명 등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20) 『삼천리』 1933년 3월호에 『여성조선』 해당 호의 광고가 실려 있다.

학이 모습을 갖춘 1925년 10월을 전후한 시기에 강경애는 장연에서 흥풍야학 교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22] 야학 교사를 하면서 1926년 8월에는 〈다림불〉이라는 시도 발표했을 것이니[23] 1926년 8월 이후 장연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1929년 6월에 근우회 장연 지회 간부로 활동을 하는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장연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3. '『신민보』 사건'과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거리

1) 논란의 시작

이상에서 정리한 강경애의 행적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강경애가 북만 해림에서 김봉환과 함께 지내면서 '『신민보』 사건'을 일으키고 하얼빈 일본영사경찰의 사주를 받아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에 관계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논문 초두에 밝혔듯이 2005년 작가 강경애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을 때 『월간조선』(2005.2)은 '암

21) 주16)의 김헌순의 글.

22) "황해도 장연읍내 흥풍회에서는 학자 없는 청년 남녀를 위하여 누(累)년간 강습소를 경영하던바, 거(去) 1일부터 주학(晝學)을 폐지하고 야학에만 남자부, 여자부를 별로 설치하고 제씨의 열성으로 일어, 조선어, 산술, 수신, 이과, 습자, 작문 등의 과목을 교수한다는데 1개월 미만에 생도가 150인에 달한 중, 여자부의 수가 100여에 급(及)하여 농촌 교양상 호성적을 정(呈)한다고. (장연)." 「흥풍회 경영 남녀야학 성황 그 중에도 여자부」, 『동아일보』 1925.10.30.

23) 북만 해림에 있으면서 『조선일보』에 작품을 투고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의 경향이 아직 그 이전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만으로 떠나기 이전의 작품으로 간주한다.

살 사건'에 연루된 작가 강경애를 문화인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당시의 선정위원회는 심의를 다시 여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작가 강경애를 2005년 3월의 문화인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 강경애 연구자로서 강경애를 문화인물로 선정해 줄 것을 추천한 필자 자신이 직접 관련되었고, 그 전에 별다른 논의 없이 넘겼던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게 접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의 '소동'을 거치면서 필자는 문제의 연루설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 독립운동가, 구체적으로 이강훈(李康勳, 1903~2003)의 '회고'에서 비롯되었고 거기로부터 부정확하고 왜곡된 기억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기록되었다는 것, 강경애의 연루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암살 사건'의 범인이나 동기와 관련된 사실과 기록, 기억과 해석 자체가 아직도 정설이 없는 채로 유동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자료의 한계 때문에 특정인의 '기억과 회고'에 의존하고 엄밀하게 검증하지 못했던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 지금은 국내외의 새로운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서술에서 사실의 오류를 바로 잡고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학계에서는 광복회장을 지낸 이강훈의 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찾고 읽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강경애 연루설의 근거 없음과 이강훈 회고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2005년 2월 『월간 조선』은 다음과 같이 강경애 연루설을 제기했다.

>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로 <껍데기는 가라>의 시인 신동엽, 소설가 강경애(1906~1944) 등

12명을 선정했다.

지난 1월4일 오후, 국가보훈처 국장을 지낸 A씨가 기자를 찾아왔다. A씨는 "문화부가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강경애 씨가 백야 김좌진(1889 ~1930) 장군의 암살 교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

『일제하 36年-독립운동실록』은 작가 이이녕(李二寧) 씨가 김좌진 장군을 측근에서 보좌한 이강훈, 정환일(鄭煥日), 임기송(林基松) 씨 등을 인터뷰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다. 이 씨는 강경애와 김봉환(金奉煥, 일명 김일성) 두 사람이 하얼빈 영사관 경찰부 소속 마쓰시마(松島) 형사의 회유로 변절, 공산계 급진주의자인 박상실(朴尙實)을 사주해 1930년 1월24일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것으로 적고 있다. (…)

강경애가 김좌진 장군 암살 교사 음모에 간여했다고 주장하는 문건들로서는 『독립운동대사전』(광복회), 『한민족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이강훈 자서전-민족해방운동과 나』(제3기획), 『이강훈 역사증언록』(인물연구소), 『일제하 36年-독립운동실록』(동도문화사), 『흑룡강성 해림시 김좌진학술토론회 자료-박기봉』(조선족민족사학회) 등이 있다.[24]

여기서 『월간 조선』이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모두 '암살 사건' 당시 김좌진의 한족총련에 관련된 사람, 특히 이강훈의 회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건 당시의 기록이나 사건의 다른 쪽의 회고 등과 비교해 보는 텍스트 비판 과정 없이, 이강훈의 입장만 반복되는 상태에서 그 회고를 '사실'로 간주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를 바탕으로 다시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24) 오동룡, 「의혹 추적=문화부는 왜 '이 달의 문화인물'에 프로문학가 강경애를 선정했나="소설가 강경애는 김좌진 장군 암살 교사범의 동거녀"(전 광복회장 이강훈 옹의 회고)」, 『월간 조선』 2005년 2월호.

2) '암살 사건'에 대한 당대의 기록

1930년 1월 24일 발생한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과 잡지의 기사, 일본 경찰의 내부 보고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 이들 '기록'은 암살자의 정체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지시를 받은 자라는 설과 김좌진 부대 내부의 반대파라는 설로 나뉘기는 하지만, '일제의 사주'라든지 강경애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우선 '암살 사건'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측의 문건을 보면 영사관 측은 암살의 동기를 '빈주(賓州)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재중국한인청년동맹의 복수로 보았다.

> 한족총연합회는 원래 그 성립에 있어 김좌진 등 구계 국수파와 남대관 등 무정부주의자 신파가 사회적 실각이라는 동일한 처지에서 서로 제휴했고, 한편으로는 지방적으로 기호파(김좌진 등), 함경도파(남대관, 박순갑), 경상도파(한규범) 등이 종합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단체 내에 항상 분쟁, 반목이 많다. 김좌진 등 기호파는 자기 세력 유지를 위하여 최근 오상현에 근거를 둔 기호파에 의지한다. 그런데 종래 흉폭을 드러내어 김좌진 일파에 대한 지방의 반감, 특히 빈주사건의 피해자 가족 기타 재중청맹 일파는 항상 김좌진의 살해를 계획해 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달 25일 그가 중동선 산시참에서 암살의 위기에 빠진 것도 이들 일파의 복수 행위로 본다.[25]

일본 측에 취재원을 둔 국내 신문도 사건 초기에는 같은 입장이었다.[26]

---

25) 「韓族總聯合會ノ現狀及同會規約, 保安條例幷ニ地方農務協規定ニ關スル件」, 『外務城 - 滿洲ノ部』SP. 205-4, 12885~12886. 1930.2.8. 원문은 일어, 번역은 인용자의 것.

26) 「신민부의 수령 김좌진 피살설」, 『중외일보』 1930.2.9. ; 「흉보를 확전(確傳)

피해자인 김좌진의 한족총련 측도 유사하게 한족총련과 영역 다툼을 하던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보았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낭독한 〈고 김좌진 선생 약력〉에서는 "악한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일원이며 재중한인청년동맹원 박상실(朴相實, 일명 金信俊)이러라."라고 했다. 그리고 1930년 4월에 발행된 잡지 『탈환(奪還)』에서는 고려공산당 만주총국의 주요 간부 김봉환 등이 백치인 박상실을 매수하여 저지른 일이며 한족총연합회 보안대는 주모자인 김봉환과 이주현을 체포해서 처치했다고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 이 사변의 주모자는 제3인터내셔널에 속한 악한이다(그것은 고려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이 제3국제당의 지도하에 있던 사실).
> 김좌진 군이 피살 당한 이튿날 합이빈에서 발간하는 러시아 기관지에는 무슨 대 성공이나 한 듯이 대서특서로 "토비 강도를 죽임"이라는 제목 하에 떠들었다. 이 주동자는 전에 북평에서 김천우와 같이 『혁명』이라는 잡지를 발간한 김봉환(일명 일성)과 그 외에 이주현, 이철호, 김윤 들도 공모한 무리이지만 김좌진을 살해하는 때에 비겁하여 책임을 벗으려 하던 자들이다. 이 자들은 그 책임을 한족총연합회의 일부의 행동이라고 역선전을 하여 동요시키려고 하던 사실을 이주현을 취조한 결과 고백하였다. 또 어리석은 박상실(불분명)을 매수하여 이 음모를 실현시킨 것도 폭로되었다. (…)
> "일본 정부자의 쓰는 비열한 수단으로 일개 혁명가를 암살하는 저들의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혁명선상에 장애물이 되는 저들을 그대로 방임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락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공산당을 혁명선상에서 관찰할진대 제국주의와 같이 큰 장해물이다.
> 조선공산당은 수 년 동안 합동 운동을 주창하여 왔지만 우리 한족총연합회는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나가든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통신망으로 각 방면에 활

하는 백야 김좌진 부음」, 『동아일보』 1930.2.13.

동하여 결정한 것은 총연합회 보안대는 주동자 김봉환과 이주현을 사형하여 동지 김좌진 군의 보수를 갚아주려 한다."[27]

이 기사를 보면 실제 총을 쏜 박상실은 달아났고 한족총련 보안대원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봉환이나 이주현 등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족총련 측 입장에서 쓴 기록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자세하다. 『탈환』이라는 잡지의 성격으로 미루어 이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 아나키스트로 기울었던 한족총연합회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 받은 공산주의자 측에서는 김좌진이 민중을 괴롭히고 일본영사관과 은밀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살 사건'에 대해 직접 기록한 조공 만주총국 측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암살 사건 전후에 공산주의자 측에서 김좌진의 행태를 비판한 문건은 많다. 다음은 '암살 사건' 직후 북만 지역을 순방한 사람이 보고한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민부 내 경파는 직접 녕안현 가야구의 농민 1명과 소녀 1명을 도살하고 2명을 중상입혔다. 그때부터 신민부는 몰락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명의상에서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9년 여름 김좌진은 (…) 조족(韓族)총련합회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해림 등지를 차지하고 한회(韓會)를 조직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을 구타, 축출하고 중국 경찰에 밀고

27) 「북만주를 진동케 한 산시 김좌진 씨 사건 (자유연합신문에서)」, 『신한민보』 1930.7.24.; 같은 내용이 「不逞鮮人刊行物「奪還」金左鎭に關する 記事 -『還還』4月 20日 發行 第9号 譯文」(『外務城 警察史 - 滿洲の 部』SP. 205-4, 12977)에도 있다. 『還還』은 아나키스트쪽 간행물로 1930년 4월 20일에 발행되었다는 제9호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당시 일본영사경찰이 압수해서 일본어로 번역한 초록만 볼 수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신한민보』 기사는 미국에서 발간된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일제측 자료보다 늦지만 국한문으로 발간된 원문을 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혁명자들을 체포하였다. 한편 로씨야, 중국 문제를 리용하여 장학량과 특별구 경찰에게 공산당을 체포, 살해하는 선봉이 되겠다고 애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야수적인 형벌 수단으로 농민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주구 김좌진이 1930년 1월 산시(山市)에 있는 그의 정미소 내에서 피살된 후 그들은 최후 발악을 하여 중동철도 기차에서 마음대로 ML파 동지들을 체포했고 2월에는 김일성(金一星) 동지를 살해하였고 7~8명을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무시로 각지에 출몰하면서 암살을 감행하였다.[28]

여기서는 직접 암살자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산주의자 측에서 문제의 김봉환(金一星)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지'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김봉환이 일본영사관 측과 밀약한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동지'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후 조공 만주총국의 공식 입장은 조공 만주총국의 지시로 이복림(李福林, 1907~1937)이 암살을 수행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이복림에게서 직접 '암살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양환준(梁煥俊)의 회고로 뒷받침된다.

김좌진은(…) 1929년 할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장 마쓰모도(松本 또 松島)라고 함)와 결탁하여 수치스러운 민족의 역적이 되었다. (…) 조공 아성총국에서는 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인정하여 김좌진을 없애치우기로 결정지었다. 1929년 가을에 총국에서는 공도진(최동범, 리복림)[29]을 산시(山市)

28) 「위성(威成),진공목(陳公木)이 북만 14개현을 조사한 후 정리한 보고, 1930년 5월 18일」,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편찬위원회 편,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제1권)』, 木丹江: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4, 230면. 진공목은 1929년 6월 조공 만주총국(ML계)의 조직부장이었다가 1930년 3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산하 소수민족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29) 공도진은 조공 만주총국 김백파의 지령으로 김좌진을 죽이고 돌아와 중공 아성현위 서기로 있다가 1930년 11월경 중국 호로군에게 체포되었고 1931년 11

에 잠입시켜 (…) 공도진은 삼림 속으로 냅다 뛰어 도망쳐 버렸다. 필자가 1930년 3월 아성현에 갔을 때 해거우에서 공도진을 만났는데 그가 직접 김좌진을 죽이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고, 필자가 조공 만주총국 책임비서 김백파(金白波/金聖得, 1893~?)에게 왜 김좌진을 죽여버렸는가 물어보았더니 김백파도 위에서 말한 사실들을 또 나에게 해설해 주었다.[30]

양환준의 회고에는 김봉환은 등장하지 않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김백파의 지시에 의해 이복림이 암살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복림이 박상실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암살 사건' 직후에 작성된 세 관련자(한족총련,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기록에는 김봉환은 등장하지만 강경애의 이름이나 관련된 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강경애라는 이름은 해방 이후 김좌진 측인 신민부 관계자의 회고, 〈북만신민부〉에서 '『신민보』 사건'과 함께 처음 등장했고 강경애를 '암살 사건'에까지 연관시킨 것은 이강훈의 회고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강훈의 회고가 나온 이후 여러 독립운동사가 이강훈의 회고를 사실로 기록하게 되었다.

3) '암살 사건'에 대한 후대의 회고

해방 이후 김좌진 장군 전기도 나오고, 독립운동사도 간행되었지만 김좌진 암살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 측의 소행으로 기록되었다. 강경애라는 이름은 과거 신민부 관계자의 회고인 〈북만신민부〉

월 봉천에서 출옥했다.

30) 양환준, 「20년대 후기 재만 조선공산당인들의 활동」,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연변문사자료위원회 편, 『연변문사자료 4』, 1986.

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는 '여류문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하는 신분 규정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온다. 〈북만신민부〉는 신민부 별동대원이었던 임강(林堈, 林基松, 1895~1978)이 1945년 12월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 수고본을 1982년에 활자화한 것이다.

> 1926년 4월 김일성(金一星, 奉安) 강경애(姜敬愛) 등이 『신민보』에 투고한 사설의 문구를 역해(逆解) 악용한 하얼빈 왜영경(倭領警)은 적색 논문이란 구실을 붙여서 (당시 동삼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 긍하여 공산주의자 취체가 삼엄한 시기였다.) 중동철도 호로군 사령을 매수하여 중국군 일 소대 병력을 영솔한 왜형사 2명(國吉・ 前村, 사후에 탐지한 일)이 『신민보』 발행지인 흥륭진촌(興隆鎭村, 『신민보』 본부 소재로 오인되었다)을 새벽에 습격하여 선전부 위원장 허성묵(許聖默)과 경사국장 이광진(李光鎭은 경사국장에 피임되자 東賓縣 지방에 사건이 발생, 출장 처리하고 본부 귀로 중 이곳을 경유하였다가)을 체포 압송되어 신의주 감옥으로 이송 복역하다.[31]

이 글에서는 김봉환과 강경애가 『신민보』에 투고한 글을 일본영사경찰이 불온하다고 트집 잡아서 허성묵을 비롯한 선전부원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신민부 약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나아가 〈신민부 약사〉는 김좌진의 죽음까지 기록했지만 암살범에 대해서는 따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32]

---

31) 임강, 〈북만신민부 - 1925년 3월~1928년 8월〉 (1945년 12월 기록). 최홍규, 「발굴사료 소개 2- 20년대 북만주 항일독립운동의 증언」, 『자유공론』 17-183 (1982년 6월)

32) "1926년 4월 김일성 강경애 등의 『신민보』에 투고한 사설의 문구를 역해 악용한 하얼빈 왜 영사 경찰은 적색 논문이란 구실을 붙여서 (당시 동삼성과 전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산당원 취체가 가혹한 시기였다) 중동철도 호로군 사령을 매수하여 중국군 1소대 병력을 영솔하고 일 형사 수 명이 『신민보』 발행지인 흥륭촌(興隆村)을 습격하여 선전부 위원장 허성묵 외 1명이 체포 압송되어 신의주 감옥으로 이송 복역하였다. (…) 서기 1930년 초 김좌진 장군은 이강훈, 이달 두 청년에게 동만을 거쳐서 국내에 잠입하여 활약할 중대한 사명(국내 거물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문건이 '『신민보』 사건'을 언급한 대목은 세부 사실부터 틀려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허성묵은 1926년 4월이 아닌 1927년 3월에 체포되었다.[33] 더 큰 문제는 시기적으로 김봉환과 강경애는 북만 지역에서 발행되던 『신민보』에 관여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신민보』의 발간 상황과 기사 목록, 필자에 관한 것은 당시 『신민보』를 감시하고 압수한 일제 측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민보』는 1925년 4월~8월까지 순간(旬刊)으로 하여 제12호까지 나온 뒤 일시 휴간했다. 주요 필자는 허성묵, 박두희(朴斗熙, 朴寧熙, 1896~1930), 최창익(崔昌益)이다.[34] 1926년 5월 21일에 『신민보』 제14호가 나왔고 거기에 사설로 실린 「혁명적 정당과 민중운동 본위」라는 글이 불온하다는 일본경찰의 보고가 있다.[35] 1926년 6월21일 제15호가 나온 뒤 1926년 8월 1일 발행 예정이었던 제16호는 정의부가 신민부원을 죽인 사건을 신민부의 입장에서 성토하는 기사를 게재하려다가 내부적으로 양 파의 분열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발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일제측의 첩보로 미루어 최대한 1926년 8월 제16호까지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6] 이후 1927년 3월 『신민보』 발행 겸

급 동지들에게 밀서 및 군자금 모집)을 부여하여 파견하였다. 비장한 각오로써 동만을 넘어서 적의 간성으로 잠입하려 할 즈음에 김좌진 장군이 서거하였다는 신문을 보고 이 두 청년을 발길을 돌리어 주야 질주하여 김좌진 장군의 영전에 임하게 되었다." 신민부원 생존자 일동 공동기록, 〈신민부의 약사〉(1954년 4월 기록), 최홍규, 「발굴사료 소개3 - 20년대 북만주 항일독립운동의 증언」, 『자유공론』 17-184 (1982년 7월)

33) 「하얼빈 일본영사관 신민부원 다수 검거」, 『동아일보』 1927.3.10.

34) 「新民府 幹部 崔昌益 取調 狀況に 關 スル件」, 『京鍾警高秘 第12939号ノ1』 1925. 11. 10. (최창익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1925년 10월 14일 잡혀서 취조를 받고 11월 11일에 방면되었다).

35) 「不穩新聞 「新民報」 記事に 關 スル件」, 『朝保秘 第463号』, 1926.6.23.

36) 「新民府機關紙 「新民報」ノ記事ニ關スル件」, 『哈派 第193號』, 1926.9.7.

편집인 허성묵을 비롯한 신민부원들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공판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의하면 허성묵이 사회주의 쪽과 연계하려 했다는 구실로 일제가 허성묵을 체포했음을 알 수 있다.

> 허성묵은 국내외에 선전을 주로 하는 동시 ○○운동을 더한층 사회주의 운동과 같이 하자는 의견으로 노동 로국(露國)의 간부와 비밀히 연락을 취하며 그때 마침 곽송령(郭松齡)의 반란 기회로 그를 후원하기로 하여 당시 북경에 부하 김병희(金炳喜)를 파견하고 비밀히 활동한 일이 있었고 작년 11월 14일에 동 부 정기총회를 한 후부터 더한층 공산제로 취하려고 특파원을 노농정부와 광동정부로 보낸 일이 있었다는 사실 진술이 끝나자 피고 김병희는 작년에 신민부 주아(住俄)외교위원으로 있었던 사실을 진술한 후 그 외 여덟 명의 피고도 각기 자기가 한 일을 숨김 없이 일일이 진술하더라(…)[37]

이러한 『신민보』 발행 관련 정보와 그 주필이었던 허성묵 관련 사건 기록 어디에도 강경애는커녕 김봉환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신민보』가 발행되고 있던 1925년 3월~1926년 8월의 시기에 김봉환은 아직 중국 북경에[38], 강경애는 아직 황해도 장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민보』 사건'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허성묵에 대한 후대의 기억의 왜곡이다. 최학송은 허성묵의 후손 허경진과 인터뷰한 바를

37) 「외교선 착수로 주로(住露)위원 특파」, 『동아일보』 1927.8.3.

38)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김봉환은 적어도 1926년 10월까지는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즉 1926년 10월 16일 설립을 선언한 大獨立黨組織北京促成會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獨立宣言書 入手에 관한 件 (1926년 12월 17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支那各地(4)』). 나아가 1927년 1월 28일자 『중외일보』의 「북경한국학생회, 두 파로 갈리었던 학생회 해체하고 한 단체가 되어」라는 기사에도 김봉환이 나온다. 또한 김봉환에 대해 잘 알고 가장 자세한 회고를 남긴 정화암은 김봉환이 영안현으로 간 것은 1927년 초라고 말했다.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801면.

가지고 강경애 김봉환의 『신민보』 투고 설의 방증으로 삼았는데[39] 위에서 본 '『신민보』 사건' 당시의 관련 보도 기사와 일본 경찰 문건 등 역사 기록에는 없는 사실을 후대인이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을까? 허성묵의 집안에서는 〈북만신민부〉의 회고를 사실로 받아들인 뒤 그것을 다시 허경진 등의 후손에게 전승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화인물 선정 당시 『월간조선』에서 '『신민보』 사건과 암살 사건을 한꺼번에 엮어서, '일본제국주의를 논박하는 글을 종종 발표했던 김봉환이 1929년 겨울의 어느 날 하얼빈에 갔다가 일본 영사관원에게 체포되었으나 강경애, 마쓰시마 세 사람의 밀약으로 즉시 석방되어 암살 사건을 교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강훈의 회고가 유일하다. 김좌진과 가까웠어도 신민부 쪽이 아닌 경우에는 회고에도 김봉환만 등장할 뿐 강경애는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40] [41]

---

39) 2006년 최학송에게 허경진은 "강경애와 같은 고장 선후배 사이였던 허성묵은 강경애가 『신민보』에 쓴 글 때문에 한동안 숨어 다니다 신민부의 한 부하가 밀고하여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고 했다고 한다. 최학송,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하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논문, 2007.02, 19~21면.

40) 이을규는 당시 사건을 수습하고 '백야 김좌진 장군 사회장'을 준비했던 인물이다.
"백야 위원장은 공장수리를 지시하러 나갔다가 공산당원인 김봉환(金奉煥) (일명 김일성(金一星)의 조종을 받은 그의 일당 박상실(朴尙實) (일명 朴尙範, 金信俊)의 권총 저격을 받고 넘어지니, 슬프다, 재만 한교 이백 만은 눈물로 앞이 캄캄하였고 일제 주구와 적마(赤魔)들은 미친듯이 좋아 날뛰었다. (…) 군사위원장 이붕해(李鵬海) 씨의 지휘로 조직된 치안대의 일부는 그날 밤으로 해림역 근교에 있는 적마의 소굴을 급습하여 김봉환 외 1명을 잡는 동시에 놈들의 문서를 압수하여서 이번 흉계가 김봉환의 지휘라는 것과 직접 하수자가 박상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하수자 박상실은 끝내 잡지 못하였으므로 수일간 엄중한 조사를 마친 후 김봉환 외 1명만을 처단하고 말았다." 이을규, 『시야 김종진 선생전』, 한흥인쇄소, 1963.5, 100~102면.

41) "김좌진 암살 사건은 내가 잘 압니다. (…) 그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나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워 함께 많은 일을 했어요. (…) 김일성이라는 사람인데 나하고 천진과 북경에서 같이 있었어요. (…) 만주 영안현이라고 하는 곳의 어느 마을에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고국에서 부임해 온 여교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떠났습니다. (…) 그가 영안현으로 떠난 때는 1927년

이강훈은 이에 관련된 회고를 거듭하고 자신이 저술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도 그렇게 써 넣음으로써 논란을 낳았다. 이강훈의 회고 중 제일 이른, 말하자면 원형에 가까운 것을 하나 인용한다.

> (…) 공산당으로서야 김좌진 선생만 없앨 수만 있다면 만주운동은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은 했었겠지만 민족의 큰 별인 김 선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김봉환이가 감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
> 강경애(姜慶愛)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소설가이지요. 이 여자가 김봉환의 애인입니다. 그런데 강경애도 공산당이고 김봉환도 공산당입니다. 그러한 사이인데 김봉환이 하얼빈에 나갔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렸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송도(松島)[42]라는 왜놈이, 그놈이 조선총독부에서 내보낸 놈인데, 이놈이 하얼빈의 일본영사관에서 활약하는 놈인데 모략정책의 귀신입니다. 이놈이 붙잡혀 온 김봉환을 모략정책의 도구로 쓸 계획을 짭니다. 김봉환을 왜경의 스파이로 쓰자는 뱃심입니다. 이때 김경애(金慶愛)가 찾아왔어요. 하얼빈 영사관에 찾아와서 송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송도와의 밀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봉환이를 풀어줄 터이니 그 대신 김좌진을 죽인다는 거래입니다. 김봉환으로서는 김좌진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속한 고려

이었지요. (…) 그 사람이 다른 이름이 김봉환입니다. (…) 그때 이미 공산주의자와 우익 독립운동가들 사이가 아주 나빠 같은 동포요, 똑같이 항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있었어요. (…) 공산당은 해림을 근거지로 한 한족총련이 공산당의 활동과 사상 전파에 많은 지장을 주는 데다가 아예 기반마저 굳혀 가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족총련의 우두머리인 김좌진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 김봉환은 박상실이란 사람을 매수해 김좌진 쪽에 침투시켰습니다. (…) 박상실을 정미소 머슴으로 위장해서 침투시킨 것입니다. (…) 경호원들이 돌아왔을 때는 박상실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한족총련에서는 사람들을 풀어 해림을 뒤져 예배당에 숨어 있던 김봉환을 잡아냈고 김좌진을 죽이라는 공산당의 지령문도 찾아냈습니다. 하수인 박상실은 중국 호로군에게 잡혔지요." 정화암의 회고는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에 들어 있다.

42) 조선총독부 하얼빈 파견원 松島親造를 가리킨다.

공산당에도 충실한 것이 되고 또 왜경의 요구도 들어주는 것이 되니까 굴복했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김봉환은 감옥을 나와 해림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려공산청년회의 박상실을 하수인으로 선정해 김장군의 곁으로 침투시킵니다.[43]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을 이강훈이 최초로 언급한 이정식과의 면담에서는 김봉환과 함께 있었던 여성의 이름이 강경애와 김경애로 성이 헷갈리고 한자도 '敬/慶'으로 다르다. 그런데 그 이후 자서전 등을 쓰면서는 '여류문인 강경애(姜敬愛)'로 못 박고 있다. 회고가 반복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를 덧붙이는데 그럴수록 그것은 사실과 어긋나게 된다.[44]

이러한 내용을 되풀이 한 이강훈의 회고 중 가장 자세하게 쓴 것을 보자.

때는 1927년 봄이었다. 김봉환(金鳳煥)이란 자가 중동선 해림역에 도착하여 그의 애인 강경애라는 여류 문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봉환은 본래 양산 통도사에 있던 승려인데 일찍이 북경으로 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공명하고 활동하다가, 김좌진 장군이 영도하는 독립운동기관에 대한 공작 책임을 지고 북만으로 와서 당시 독립운동자가 출입하는 요충지인 해림(海林)에 정착하였다.

신민부의 기관지 『신민보』에 종종 투고도 하면서 수많은 민

43)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422면. (1960년대 말 이정식 교수가 면담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이다. 1960년대 말 이정식 교수와 면담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들은 후에 회고록 자서전 등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정식 교수와의 면담이 사건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억이 될 것이다) 이정식이 이강훈과 면담한 것은 1969년이다.

44) 이강훈, 『항일독립운동사』 정음사, 1977, 125면.; 이강훈, 「공산당에 암살 당한 김좌진 장군의 최후」, 『북한』 1984. 6. ;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제삼기획, 1994), 127~128면.

족진영의 간부들과 접촉하여 그에 대한 평이 나쁘지 않았었다. 『신민보』에 투고하는 중에 때로는 격렬한 항일 논문이 실려지기도 하였다. 1929년 여름 어느 날, 김봉환이 하얼빈에서 일본 영사관원에게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 때 일본 당국은 3.1 운동 후 이광수의 애인 허영숙(許英淑) 여사를 이용해서 상해 임시 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이광수를 귀국하게 한 수법을 써서, 즉 소위 미인계를 써서 혈기 방장한 한국 혁명 청년의 마음을 현혹케 하던 상습적인 일제 무리의 교활한 수법으로 독립운동자 취체에 대한 책임을 전담한 하얼빈 영사관 경찰의 마쓰시마 경부로 하여금 강경애를 설득시켜 하얼빈 유치장 면회실에서 삼자가 회담 한 결과, 그 즉시로 김봉환이 석방되었다.

당시 일제의 형법대로 한다면 몇 해인가 옥고를 치러야만 될 신세인데, 그대로 석방되었으니, 여기서 김봉환도 지식인이라 양심적으로 고민이 없지도 않았던 것인데 김봉환은 이성을 잃고, 일제 무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도 김좌진 장군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중에서도 북만 지역에서 활동하던 자가 두려워하는 존재인 김좌진 장군을 없앰으로써 일제 무리에 대한 보은도 되고 자기 동료들에 대한 환심을 사게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자기의 심복 청년 박상실(朴尙實)을 시켜서 1930년 1월 24일(음력 1929년 12월 25일) 3시, 장군의 자택에서 300미터 거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흉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김좌진 장군을 해한 장본인은 일제 무리와 일부 소아병적 공산주의자와의 합작으로 한 흉행이었다.[45]

이런 식의 이강훈의 회고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앞에서 보았듯이 '『신민보』 사건' 관련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둘째,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마쓰시마가 하얼빈에서 김봉환과

45) 이강훈, 「김좌진 장군의 생애」, 『나라사랑』 41, 1981.12, 35~36면.

강경애를 체포하고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는 1929년 여름에 강경애는 황해도 장연에 있으면서 근우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 [장연] 근우회 장연 지회에서는 예정과 같이 지난 10일 오전 아홉 시 경에 회원 이십여 명(…)이 본 읍 향교 대성전 뒷동산에 회집하여 성대히 야유회를 개최하고 순서에 의하여 동회 서무부장 강경애 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가 있은 후(…)[46]

1929년 5월 10일 근우회 본부가 장연 지회를 승인했다는 당대의 기록으로 보아 근우회 장연 지회는 그 이전에 설립 준비를 하여 승인을 받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 1929년 6월 10일의 행사였다. 서무부장으로서 개회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경애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강훈의 회고에 '여류 문인' 혹은 '소설가'로 등장하는 강경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작가 강경애와 등치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북만 해림에 있었던 시기의 강경애는 아직 '문인' 혹은 '소설가'로 알려지거나 행세할 만한 존재가 못 되었다. 해림에 가기 전까지 강경애는 감상적인 짤막한 시 3편을 독자 투고로 발표한 '문학소녀'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강훈의 회고의 오류를 종합해서 선정적으로 묘사한 결정판이 방송작가 이이녕의 『독립운동실록』이다. 제목을 '실록'이라 붙이고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인 '허구'이다. 아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인물이나 진실을 창조한 소설도 아닌, 흥미본위 읽을거리일 뿐이다. 강경애를 등장시키는 대목을 보자.

---

46) 「장연 근우지회 야유」, 『동아일보』 1929.6.17.

이 사건[47]이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인 1929년 5월 하순이었다.

(…)

"강경애도 죄를 만들면 있는 거야."

마쓰시마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작년 11월 김좌진이 지휘하던 군사단체 신민부의 기관지 『신민보』에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한다는 당신의 논설문을 실을 때 강경애가 원고를 수정해다가 편집부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사실 강경애는 지금 경기도 경찰부에서도 수배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혜성』이라는 잡지에 <어머니와 딸>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한 여류 소설가가 왜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북만주 구석으로 와서 살지?"[48]

'『신민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없음은 이미 밝혔고, 강경애가 발표했다는 장편 소설 ≪어머니와 딸≫은 '암살 사건' 이후인 1931년 8월부터 1932년 12월까지 『혜성』에 연재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이이녕의 『독립운동실록 17』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틀리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런 글에 대해서 『월간 조선』의 기사는 '사료적 가치'를 운운하며 강경애를 연루시킨 것이다.[49]

---

47)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 1930년 1월 24일 발생.

48) 이이녕, 『민족반세기사-일제하 36년 독립운동실록 17-최후의 광란』, 동도문화사, 1984, 18면, 23면. 이 내용은 이이녕, 『실록 소설, 암살지령 〈장쭤린과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 배신과 음모, 추악한 일본인들』(대한교육문화원, 2016)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2016년 판에서는 '실록 소설'이라고 하여 허구화 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1984년의 것을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실었고 나아가 '등장인물'이라고 하여 작가 강경애 관련 사항을 초두에 정리해 놓음으로써 원래의 오류를 더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49) 오동룡, 「〈의혹 추적〉 문화부는 왜 '이 달의 문화인물'에 프로문학가 강경애를 선정했나 = "소설가 강경애는 김좌진 장군 암살 교사범의 동거녀"(전 광복회장 이강훈 옹의 회고)」, 『월간 조선』 2005년 2월호. 그런데 문제의 『월간조선』의

4) 기록과 기억의 거리

이상의 기록과 회고를 종합해 볼 때 작가 강경애는 1927년의 '『신민보』사건'이나 1930년의 '암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1927~1928년 강경애가 북만 해림에 있었던 시기에 김봉환도 해림에 있었으며 당시 김봉환은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 '암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강경애와는 관련 없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당대의 기록과 후대의 회고, 그리고 역사학계의 연구는 모두 조공 만주총국의 지시를 받은 박상실(이복림)이 김좌진 장군을 죽였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말한다. 조공 만주총국 화요계는 김좌진이 일본과 야합하여 공산당원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김백파가 이복림을 시켜 김좌진을 제거하도록 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족총련 쪽의 기록은 한족총련의 세가 불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조공 만주총국이 김봉환을 시켜 박상실을 사주하게 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족총련 관계자 중에서도 이강훈만이 김봉환이 하얼빈 일본총영사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김봉환은 실제로는 '암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암살 사건' 당시의 피해자 측에서는 김봉환의 사주로 박상실이 총을 쏘았다고 하여 김봉환의 거처를

오동룡 기자는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에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문서 입수 - 최종 확인 - 김좌진 암살범은 고려공산청년회 김신준(金信俊) =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배후 조종설'은 확인 안 돼」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다시 썼다. 사건 당시 일본 영사관 측의 기록을 찾아서 암살범으로 지목된 박상실=김신준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확정지으면서 그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배후조종설은 해결 안 된 채로 남아 있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찾아가서 조공 측의 지령문을 찾았고 그래서 암살 교사범으로 몰아 죽였다고 한다.[50] 그런데 가해자를 자처한 조공 만주총국 화요계 쪽에서는 '암살사건'과 관련해 김봉환의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복림은 조공 만주총국 화요계의 인물이고 김봉환은 ML계의 인물이라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도 같다. 당시 ML계에서도 김좌진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듯, ML계였던 지희겸(池喜謙, 1908~1983)도 후에 "만약 화요파에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ML파에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51] 앞서 인용한 『탈환』의 기사[52]를 떠올려 보면 김봉환은 ML계 조공 만주총국에 속한 인물로서 해림 지역에서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암살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공산주의자라는 점에서 화요계인 박상실의 배후로 오해를 받았고 그런 이유로 한족총련 보안대의 손에 죽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그런 김봉환을 이강훈이 굳이 일본영사관 측에 연루시킨 근거나 이유는 무엇일까? 이강훈의 회고가 '일화'라고 소개하는 김봉환-강경애-마쓰시마의 비밀스런 관련은 세부 날짜나 정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래를 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김봉환이나 강경애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런 밀약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들어서 알려졌다면 만주총국이든 한족총련이든 그 임시에 김봉환을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지나다가 암살 사건이 나자마자 김좌진 장군의 부

50) "(…) 일부는 그날 밤으로 해림역 근교에 있는 적마의 소굴을 급습하여 김봉환 외 1명을 잡는 동시에 놈들의 문서를 압수하여서 이번 흉계가 김봉환의 지휘라는 것과 직접 하수자가 박상실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나 하수자 박상실은 끝내 잡지 못하였으므로 수일간 엄중한 조사를 마친 후 김봉환 외 1명만을 처단하고 말았다." 이을규, 『시야김종진선생전』, 한흥인쇄소, 1963, 100~102면.

51) 박환, 『만주벌의 항일 영웅 김좌진』, 도서출판 선인, 2016, 215~216면.

52) 주28) 참고.

하 쪽에서 김봉환을 죽였고 '강경애'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정보가 없다. 그렇다면 암살 사건 이후 마쓰시마가 자기가 시킨 일이라고 떠벌리기라도 했을까? 이 점에 대해 이강훈의 회고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나 회고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이강훈이 굳이 김봉환을 일본영사관의 마쓰시마와 연결시키고 그것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이강훈이 쓴 「내가 밝혀야 할 두 악한」이란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이강훈은 1926년 영고탑에서 신민부 별동대에게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영필(具榮泌/崔桂華, 1892~1926)과 1930년 해림에서 한족총련 보안대에게 살해당한 김봉환 두 사람만을 콕 찍어서 이들이 친일 밀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처단했다고 밝히고 있다.[53] 그런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김봉환처럼 구영필에 대해 이강훈이 회고한 친일 밀정설이 '오해'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54] 그렇다면 최계화와 김봉환 두 사람 모두 이강훈 그룹의 '오해'에 의해 죽게 된 것이기에 오히려 그 사실을 무마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친일 밀정'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주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

4. 강경애 문학에서 북만 해림 체험의 의미

강경애의 만주 체험은 1927~1928년의 '북만 해림' 시기와 1931~1939년의 '간도 용정' 시기를 나누어 봐야 한다. 그리고 간도 용

53) 이강훈, 「내가 밝혀야 할 두 악한」,『광복지(光復誌)』, 1992.
54) 신규수, 「구영필의 독립 활동과 친일 논란」, 『역사와 사회』37, 2007.; 이성호, 『영고탑(寧古塔) 가는 길』, 동천문학사, 2015.

정 시기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931년 6월~1932년 6월, 1년간의 제1차 용정 시기는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고 '치안'을 내세워 야만적인 '토벌'에 나선 격변의 시기이다. 강경애가 여러 수필에서 표나게 이야기하는 '간도의 봄'은 바로 제1차 용정 시기인 1932년의 봄을 가리킨다. 한동안 장연에 돌아와 있다가 다시 간도 용정으로 간 것이 1933년 9월 무렵이다. 제2차 용정 시기라고 하겠다. 제2차 용정 시기에 강경애는 월급 받는 교사의 아내로 살림을 하는 한편 작품을 썼다. 병 치료나 집안 문제로 간혹 장연과 서울을 방문했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창작에 집중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강경애의 문학 세계는 주로 간도 용정 체험과 연관하여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작가로 등단하기 이전, 1927~1928년의 2년간의 해림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북만 해림에서의 체험이 강경애에게 동 시대 다른 작가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체험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경애가 북만 해림에서 '교원'으로 지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림으로 가게 되었는지, 해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로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다만 해림에 갔다 온 뒤의 강경애는 그 이전에 감상적인 시를 쓰던 문학소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강경애가 머물렀을 당시, 1927~1928년의 북만 해림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공산주의자들이 신민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들과 충돌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강경애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심각한 이념적, 물리적 갈등을 목도했을 것이다. 특히 1925년 6월의 '미쓰야협정(三矢協定)' 이후의 만주는 만주 군벌과 일본제국주의가 함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민족주의자

와 공산주의자 양측 다)을 추방하거나 체포하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게다가 만주 군벌은 일본이 조선 농민을 앞세워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인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살상하는 사건이 빈번하였고 조선 농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런 와중에 강경애 자신은 심정적으로 공산주의자 쪽에 기울었고 가난한 농민에게는 고향의 '동포' 지주나 만주의 이민족 지주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계급주의'를 견지하게 된 것 같다.

강경애가 북만 해림에서 귀향한 후 처음 발표한 글은 당시 '중도파'라 불리던 염상섭을 비판하는 글[55]이었다. '절충론자'를 자처한 양주동을 비판하는 글[56]도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했던 소품 수준의 짧은 시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글이다. 물론 카프 작가와 마찬가지로 <12월 테제>[57]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많은 작가들이 그것의 '좌편향'을 비판하는 쪽으로 나간 것과 비교하면 강경애는 일관해서 '민족부르주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만주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주나 자본가로서의 일본인이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계급적으로 서로 연대하는 농민이나 어민도 등장한다. 이는 북만 해림에서 목도한 민족을 넘어서는 억압과 그에 맞서는 초민족적 계급 연대가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북만 해림에 다녀온 후 발표한 첫 소설 〈파금〉에서는 파산한 주인공 집안이 이주하는 곳이 '만주 영고탑'이라는 것으로 북만 해림

55) 강경애, 〈염상섭씨의 논설 「명일의 길」을 읽고〉, 『조선일보』 1929.10.3.~7.
56) 강경애, 〈양주동군의 신춘평론 - 반박을 위한 반박〉, 『조선일보』 1931.2.11.
57) 1928년 12월 코민테른이 채택한 조선공산당 재조직에 관한 결정서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의 약칭이다. 조선공산당은 인텔리 중심의 조직 방법을 버리고, 공장·과 농촌으로 파고들어가 노동자와 빈농을 조직해야 하며, 민족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체험의 흔적을 드러내었을 뿐이었지만, 제1차 간도 용정 시기 이후 장연에 돌아와서 처음 발표한 〈그 여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계급주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남부여대하여 낯선 만주로 이주해 온 '간도 농민'들에게 〈그 여자〉(1932.9)의 주인공 마리아는 "여러분, 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요, 살아도 내 땅!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어요. 무엇하러 여기까지 온단 말이어요!", "그래도 내 땅 안에 있으면 이 쓰림, 이 모욕은 받지 않지요. 그래 남부여대하여 이곳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내 동포밖에 없지요."라고 연설한다. 자기 땅이 없어 고향에서 쫓겨난 '간도 농민'은 고향에서 지주에게 쫓겨나던 일을 떠올리며 마리아를 향해서 "민족이 뭐냐! 내 땅이 뭐냐!"라고 소리치고 마리아의 연설을 중단시킨다. 간도 농민에게 신여성 마리아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식민지 조선의 동포 지주이든, 만주의 이민족 지주이든 억압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가로서 출발하는 지점에서 취한 '민족부르주아'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계급주의'는 이후 그의 작품 활동 내내 지속되었다. ≪인간문제≫(1934)에 등장하는 대학생 신철이는 노동자 농민의 편과 지주 자본가의 편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 반노동자 진영으로 옮아가는 인물로, 신뢰할 수 없는 인텔리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이기영의 ≪고향≫(1933)의 김희준과는 대비되는 인물이다. 동경유학생 출신인 김희준은 자기비판을 거쳐 농민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강경애는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민족문제보다는 계급문제를 주된 갈등으로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작품을 여러 편 썼다.[58] 〈채전〉(1933.9)의 경우는 등장

58) 이런 관점에서 강경애 문학을 전반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최유학, 『강경애 문

인물이 모두 중국인이고[59] 계급문제를 내세웠다. 〈소금〉(1934.5~10)이나 〈마약〉(1937.11)에는 중국인 지주나 자본가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악행이 특별히 민족적 특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중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 많은 남성이기에 봉염 어머니나 보득이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명한 '계급주의'를 바탕으로 강경애는 당대 어느 카프 작가의 프로문학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어 소설 〈장산곶〉(1936.6)을 발표했다. 강경애 고향 근처 몽금포를 소설 공간으로 삼아 어업조합에 다니던 시무라와 형삼이의 민족을 넘어선 계급적 연대는 작품 발표 시기와 형상의 구체성에 있어서 다른 카프 작가의 작품과 비교된다. 카프 문학에서 국제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7년 무렵이고 1931년을 전후하여 재차 부각되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60] 그에 비하면 〈장산곶〉은 1936년에도 강경애가 의연히 국제주의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강경애가 북만에서 병을 얻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고일신은 해림에서의 귀향에 대해 강경애가 '병든' 몸으로 중국에서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어떤 종류의 병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쑥으로 좌욕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자궁 관련 병이 아니었던가 추측했다. 그 때문엔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는데 강경애 작품에서 독특하게 부각되는 '모성'의 문제도 이런 전후 사정을 놓고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경애 사후 그를

학에 나타난 초민족적 계급연대의식 연구」(*Journal of Korean Culture* 35, 2016.11)가 있다.

59) 〈채전〉에서 의붓어머니에게 학대받는 수방이를 동정하고, 수방이의 귀띔을 받아 쟁의에 나서는 맹 서방이 중국인인지, 조선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 소설에서는 그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60) 유문선, 「카프 작가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민족문학사연구』 24, 2004.

회고한 최정희의 글이 눈길을 끈다.

> 강경애 님
> 관 뚜껑이 가슴 위에 무겁지 않으십니까?
> "무엇 때문에 미쳤소?"하고 붓으로 묻는 물음에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버리니 미칠 밖에 도리가 없었소?"라고 필담으로 대답하셨더란 말씀을 님이 가신 뒤에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님을 알기는 님이 그 머얼리 북간도에서 아기를 낳고자 서울 병원에 오셨던 제1차 때였습니다. 저의 두 손을 님의 두 손 안에 꼭 움켜잡으시고 "글 쓰는 여자를 비로소 만난 것 같어." 하시며 아껴주시던 일 잊지 못합니다. 님은 그 뒤로도 같은 목적에서 3차나 병원에 오셨습니다마는 아기는 끝내 못 낳으셨습니다. 소설 쓰는 여자보다 아기 낳는 여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님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제가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고 혼잣소리같이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하시며 커다란 유리문으로 북악(北岳)을 내다보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님이 가셨다고 들었을 때 고달프시던 님에게 휴식할 새 영토가 마련되었음에 나는 숨이 화알 나왔습니다. 온갖 것을 다 잊으시고 님이여 편히 쉬소서.[61]

<모자>나 <마약>에서 보이는 맹목적인 모성도 그렇지만 특히 <소금>의 봉염 어머니가 자기를 짓밟고 내팽개친 팡둥의 핏줄임에도 봉희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보이고 돈벌이로 자기 아이에게 먹일 젖을 내준 명수에게까지도 강렬한 모성을 느낀다고 하는 대목은 강경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계급의식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절대적인 수준의 모성,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성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모성의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 쓰는 여자보다 아이 낳는 여자가 되고

61) 최정희, 「여류작가 군상」, 『예술조선』 2, 1948.1.

싶다'고 절규하다시피 했다는 것을 보면 강경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더 강렬하게 모성을 느끼고 작품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62)

5. 맺음말

이상에서 강경애가 작가로 본격적으로 작가로 등단하기 이전 1926년 9월 이후부터 1929년 5월 이전 시기의 행적을 밝히고, 그 동안 논란을 낳게 된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밝혀 보았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경애는 1927~1928년 2년 간 북만 해림에서 교원으로 재직한 후 아무리 늦어도 1929년 5월 무렵에는 황해도 장연에 귀향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글을 발표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931년 6월 동흥중학교에 취직한 남편 장하일을 따라 간도 용정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일제의 '치안숙정공작'을 겪고 건강도 좋지 않아 1년만에 다시 장연으로 돌아왔다. 1년여 장연에 머무르다가 1933년 9월 경 재차 용정으로 가서 1939년 말 신병으로 완전히 귀향할 때까지 살았다.

또한 강경애가 '『신민보』 사건'을 포함하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한족총련 관련자들의 착종된 기억과 회고가 특정 의도에 의해 윤색된 상태에서 '독립운동사'로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기억이 재구성

62) 강경애의 수필 〈내가 좋아하는 솔〉에 등장하는 '흡사 내가 집에 두고 온 내 애기의 그 다방머리 같았고' 같은 어구에 주목하여 한 연구자는 강경애에게 아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바 있는데(채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 샘, 1990),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했던 강경애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된 '이야기'일 뿐이다.

강경애가 교원으로 2년간 머물렀던 시기의 북만 해림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세력을 넓히면서 신민부 중심의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강경애는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인식하고 이후 작품 활동에서 그러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게 되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홍풍회 경영 남녀야학 성황 그 중에도 여자부」,『동아일보』1925.10.30.

「외교선 착수로 주로(住露)위원 특파」,『동아일보』1927.8.3.

「하얼빈 일본영사관 신민부원 다수 검거」, 동아일보 1927.3.10.

「장연 근우지회 야유」,『동아일보』1929.6.17.

「신민부의 수령 김좌진 피살설」,『중외일보』1930.2.9.

「흉보를 확전(確傳)하는 백야 김좌진 부음」,『동아일보』1930.2.13.

「위성(威成),진공목(陳公木)이 북만 14개현을 조사한 후 정리한 보고, 1930년 5월 18일」,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편찬위원회 편,『동북지역 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제1권)』, 木丹江: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4.

「북만주를 진동케 한 산시 김좌진 씨 사건 (자유연합신문에서)」,『신한민보』1930.7.24.

김경재,「최근의 북만 정세, 동란의 간도에서(속)」,『삼천리』, 1932.7.1.

「여인사전」,『여성조선』제29호, 1933.1

최정희,「여류작가 군상」,『예술조선』2, 1948.1.

「不穩新聞「新民報」記事に 關 スル件」,『朝保秘 第463号』1926.6.23.

「新民府 幹部 崔昌益 取調 狀況に 關 スル件」,『京鍾警高秘 第12939号ノ1』1925.11.10.

「新民府機關紙「新民報」ノ記事ニ關スル件」,『哈派 第193號』, 1926.9.7.

「韓族總聯合會ノ現狀及同會規約, 保安條例并ニ地方農務協規定ニ關スル件」,『外務城 - 滿洲ノ部』SP. 205-4, 12885～12886, 1930.2.8.

「不逞鮮人刊行物「奪還」金左鎭に關する 記事 -『奪還』1930年 4月 20日 發行 第9号 譯文」,『外務城 警察史 - 滿洲の 部』SP. 205-4, 12977.

신민부원 생존자 일동, <신민부의 약사>(1954년 4월 기록), 최홍규,「발굴사료 소개3 - 20년대 북만주 항일독립운동의 증언」,『자유공론』1982.7.

양환준,「20년대 후기 재만 조선공산당인들의 활동」,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원회 연변문사자료위원회 편,『연변문사자료 4』, 1986.

이강훈, 「김좌진 장군의 생애」, 『나라사랑』 41, 1981.12.

이강훈, 『항일독립운동사』, 정음사, 1977.

이강훈, 「공산당에 암살 당한 김좌진 장군의 최후」, 『북한』 1984.6.

이강훈, 「내가 밝혀야 할 두 악한」, 『광복지(光復誌)』, 1992.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1994.

이을규, 『시야 김종진 선생 전』, 한흥인쇄소, 1963.5.

이이녕, 『민족반세기사 - 일제하 36년 독립운동실록 17 - 최후의 광란』,동도문화사, 1984.

이이녕, 『실록 소설, 암살지령 <장쭤린과 김좌진 장군 암살 사건> 배신과 음모, 추악한 일본인들』, 대한교육문화원, 2016.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임강, <북만신민부 - 1925년 3월~1928년 8월> (1945년 12월 기록). 최홍규, 「발굴사료 소개 2- 20년대 북만주 항일독립운동의 증언」, 『자유공론』 1982.6.

2. 연구 논문

김헌순, 「강경애론」, 조선작가동맹 편, 『현대작가론』 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291~340면.

신규수, 「구영필의 독립 활동과 친일 논란」, 『역사와 사회』 37, 2007, 31~56면.

오동룡, 「<의혹 추적> 문화부는 왜 '이 달의 문화인물'에 프로문학가 강경애를 선정했나 = "소설가 강경애는 김좌진 장군 암살 교사범의 동거녀" (전 광복회장 이강훈 옹의 회고)」, 『월간 조선』 2005. 2.

오동룡,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문서 입수 - 최종 확인 - 김좌진 암살범은 고려공산청년회 김신준(金信俊) =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배후 조종설'은 확인 안 돼」, 『월간조선』 2007. 10.

유문선, 「카프 작가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민족문학사연구』 24, 2004, 331~356면.

임순득, 「≪인간문제≫를 읽고 - 간단한 약력 소개를 겸하여」, 『문학예술』 1949.8.

최유학,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초민족적 계급연대의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2016.11, 183~210면.

3. 연구 논저

박환, 『만주벌의 영웅 김좌진』, 도서출판 선인, 2016.

이규희, 『강경애 연구 - 빛과 어둠의 절규』, 이화여대 대학원, 1974.

이성호, 『영고탑(寧古塔) 가는 길』, 동천문학사, 2015.

이상경 엮음, 『수정 증보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2002.

이상경, 『3월의 문화 인물 강경애』, 문화관광부, 2005.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 샘, 1990.

최학송,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하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논문, 2007.02.

<Abstract>

Kang Kyeong-ae's Experience in Manchuria
－The sourc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Lee, Sang-Kyu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Kang Kyeong-ae's whereabouts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926 to May 1929, when she was preparing her debut as a writer, and uncover the actual facts. The question of whether Kang Kyeong-ae had any experience of life in Manchuria before she moved to Longjing, Jiandao after her marriage in June 1931, as well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her experiences, is intrinsically connected to the process by which her unique identity as a writer was formed. Moreover, these facts are necessary to reveal the falsehood in the claim made by some historians that she was implicated in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Kim Chwa-chin, which occurred on January 24th,1930.

The controversy surrounding Kang Kyeong-ae's experiences in Manchuria arose in 2005 when she was selected as a 'Cultural Figure of the Month'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is led to criticism of her selection, based on the memoir of independence activist Lee Gang-hun, which alleged that she was connected to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Kim Chwa-chin in January 1930.

Regarding this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s the novels and

essays of Kang Kyeong-ae,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from the era, recollections from later generations, and the recently uncovered article “Yeoseong Sajeon” (Women’s Dictionary) in *Yeoseong Joseon* (Jan. 1933), to prove that Kang Kyeong-ae worked as a teacher in Hailin Shi, Jilin Sheng, Northern China from 1927 to 1928 and returned to Jangyeon in 1929, where she remained until June 1931. These whereabouts of Kang Kyeong-ae have been compared against historical records regarding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Kim Chwa-chin, including records of the *Shinminbo* incident, to make it clear that Kang Kyeong-ae could not have had any connection to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Kim Chwa-chin.

Kang Kyeong-ae’s experiences in Hailin in northern China became the source of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inherent in her literature.

Key words: Kang Kyeong-ae, Experience in Manchuria, Experience in Hailin,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Kim Chwa-chin, *Shinminbo*, Lee Gang-hun, Kim Bong-Hwan

투 고 일 : 2017년 5월 25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